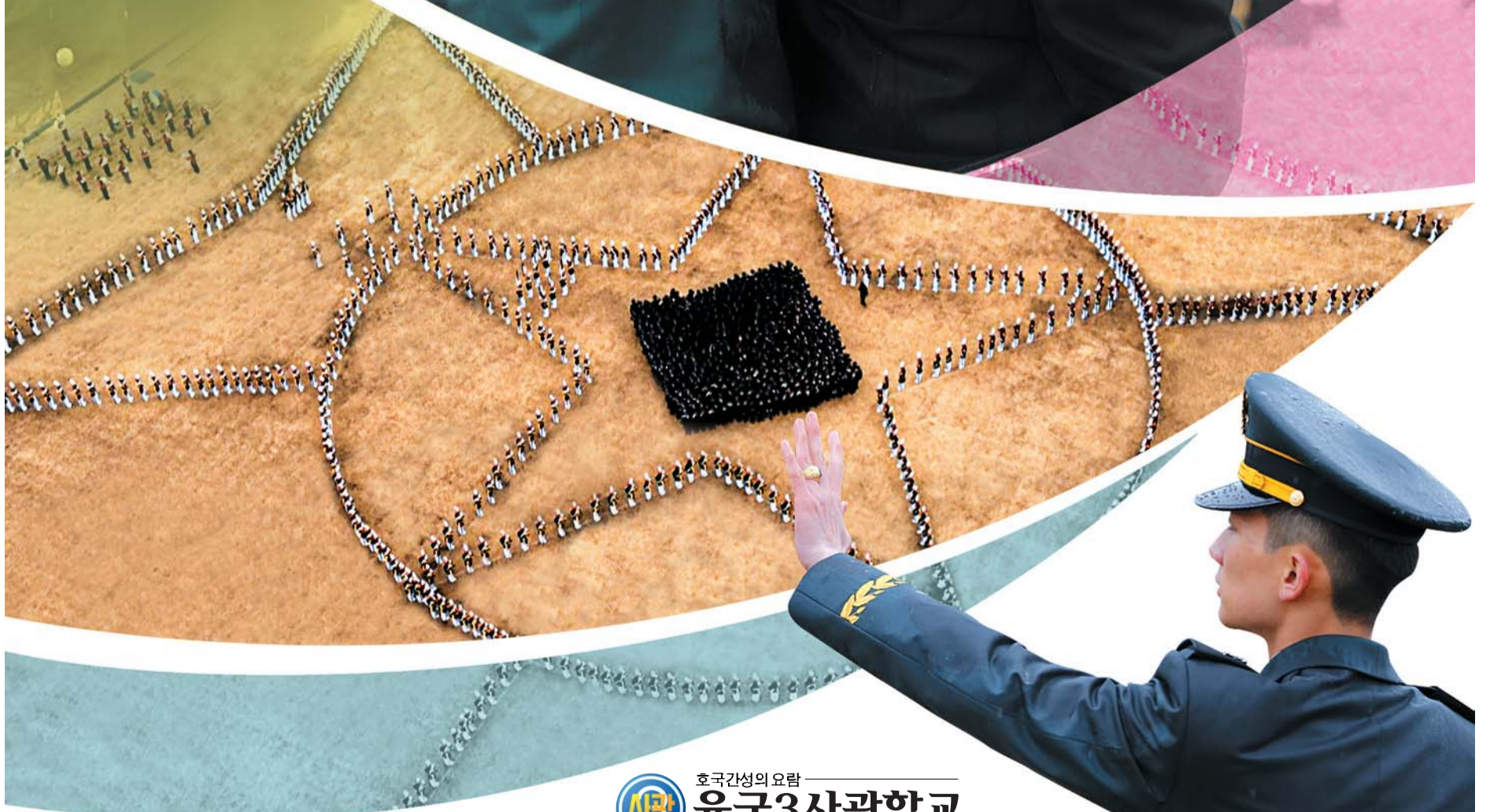


# 충성대신보

제 205호

2024년 3월 8일 금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호국간성의요람  
**육군3사관학교**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eon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이용환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최재호 / 부주간 권지민  
편집담당 김진규 / 편집국장생도 이주형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http://www.kaay.mil.kr)

205호 사진제공 및 편집: 병장 윤춘기, 상병 임은혁, 오세준, 일병 채호준



# 국가에 충성을! 국민에 헌신을! 가슴에 큰 꿈을!



“제59기 476명(여생도 48명), 졸업과 동시에 육군 장교로 임관  
한승혁 소위, 대통령상 수상 영예, 참전용사 후손 및 형제가 함께 임관 등 눈길”

지난 2월 29일, 충성연병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관으로 제59기 졸업 및 임관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외부인사를 포함 가족, 친지, 총동문회, 교직원 등 4,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은 국방홍보원의 SNS 채널과 국방TV로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며 멀리서나마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제59기 476명(여생도 48명)은 지난 2022년 입학하여 2년 동안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학위교육을 병행해 왔으며, 군사학사 및 일반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됐다.

이날 영예의 대통령상은 한승혁(남, 23세) 소위가 수상하였다. 한 소위는 “국가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적 도발 시 강력한 전투력으로 즉·강·끝을 전장에서 실현해 내는 장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무총리상은 김 호(남, 22세) 소위가, 국방부장관상은 김대수(남, 22세) 소위가 수상하였다. 합참의장상은 김정욱(남, 26세) 소위, 연합사령관상은 장재영(남, 26세) 소위가 주인공이 되었다. 손현지(여, 22세)·정부민(여, 23세)·이승민(남, 23세) 소위는 각각 육·해·공군참모총장상을, 황지유(여, 26세) 소위는 학교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학교장(소장 이용환)은 식사(式辭)를 통해 “학교의 교훈인 조국·명예·충용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국가에 충성을, 국민에 헌신을, 가슴에 큰 꿈을 품는 정예장교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수상자 외에도 함께 임관한 신입장교들의 다양한 사연들이 눈길을 끌었다.

## 병역이행 명문가의 대를 잇는다. 3대에 걸쳐 육군 간부의 길선택

병역이행 명문가로서 3대가 군 간부로 복무하게 된 인원들도 있다. 백규현(남, 25세), 최유현(남, 23세), 조진우(남, 23세) 소위는 참전용사 후손이자 3대에 걸쳐 육군 간부의 길을 걷게 됐다. 이 중 백 소위는 베트남전에 참전해 인헌무공훈장을 수상했던 육군 예비역 대위인 조부를 시작으로, 3사 27기인 현역 육군 대령 부친의 뒤를 이어 3사 장교로 임관했다. 백 소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주어진 소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군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도 김재욱(남, 26세), 서희상(남, 22세), 남민우(남, 22세) 소위도 참전용사 후손으로 육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됐다.

## 형제가 함께 임관, 부모·형제와 함께 3사 동문 등 화제

이현진(남, 24세), 이현민(남, 23세) 형제는 지난 22년 사이 좋게 입학, 2년간 교육을 받고 이날 함께 임관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현진 소위는 “동생과 함께 임관하게 되어 기쁘고,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예 선진 강군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 불가한 안보전문가로 거듭나겠다”고 당찬 의지를 밝혔다.

이현진·이현민 형제처럼 부모·형제와 함께 3사 동문이 된 신입장교는 백규현(남, 25세), 신승철(남, 22세), 황윤상(남, 22세), 이소영(여, 23세), 오성준(남, 22세), 진재용(남, 22세), 지윤아(여, 26세), 이성복(남, 24세), 김민우(남, 25세), 김민재(남, 22세), 김시연(남, 22세), 이은강(남, 22세), 이해창(남, 23세), 김민수(남, 23세), 박동욱(남, 22세), 남택현(남, 24세), 현정민(남, 22세)으로 총 19명에 이른다.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보유한 장교들

엄광식(남, 23세) 소위가 현재 획득한 자격증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기 정비사, 항공무선통신사, 수상인명구조요원, 전산 자격증 등 10개이며, 최종혁(남, 24세) 소위는 한자, 위험물 운송자, 급형기능사 등 9개다. 엄 소위는 "생도로서 갖고있는 실력을 이제 육군 장교로서 창공을 누비며 국토방위 수호에 앞장서고, 전문성을 가지고 매 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 재학 중 영예로운 수상

생도 생활 중 각종 대회에 출전해 영예로운 수상 경력을 보유한 신입장교들도 화제다. 권서현(여, 22세) 소위는 주한미8군한국군지원단 제23회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미8군사령관상을, 오상석(남, 24세) 소위는 한미 아미 윗미 전국민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국방부장관상을, 함재규(남, 22세), 나다훈(남, 26세), 류제범(남, 22세) 소위는 '23년 국방부장관배 드론봇 경연대회에서 드론축구 부분 2등을 차지해 학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소령 한상미

#### 성적우수 수상자

**대통령상**

- 한승혁(남, 23세)
- 항공
- 로봇공학과

**국무총리상**

- 김호(남, 22세)
- 항공
- 심리학과

**국방부장관상**

- 김대수(남, 22세)
- 정훈
- 심리학과

**합참의장상**

- 김정욱(남, 26세)
- 항공
- 군사사학과

**연합사령관상**

- 장재영(남, 26세)
- 보병
- 건설공학과

**육군참모총장상**

- 손현지(여, 22세)
- 의정
- 안보통상학과

**해군참모총장상**

- 정부민(여, 23세)
- 군사경찰
- 법정학과

**공군참모총장상**

- 이승민(남, 23세)
- 보병
- 법정학과

**학교장상**

- 황지유(여, 26세)
- 보병
- 안보통상학과



# 제61기 사관생도 입학

61기 369명(여생도 64명),  
5주간 충성기초훈련을 거쳐 정식 사관생도로 첫걸음  
3대 군간부가족,  
해외 유학생 등이색 인원 눈길



입학선서

학년장 수여

입학소감

61기 사관생도 369명(여생도 64명 포함)이 지난 1월 15일 기입교한 이후 5주간의 충성기초훈련을 통해 가치관 정립, 인성함양, 기초전투기술 함양 등 필수과정을 마치고 2월 19일 입학식을 통해 정식 사관생도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 친지, 총동문회, 교직원 등 3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학교 전 장병과 선배 사관생도, 외부인원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시작된 행사는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입학 및 진학 신고, 우수자 상장 수여, 입학증서 및 학년장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61기 생도 중에는 화제의 인물도 많았다. 병역이행 명문가로서 3대가 군 간부로 복무하게 될 생도는 총 6명이다. 이 중 김민규 생도(남, 19세)는 육군예비역 소장인 조부, 육군예비역 대위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한 첫발을, 오민석 생도(남, 24세)는 해군 예비역 소령인 조부, 해군 예비역 중위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교의 꿈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가족 중 3사관학교 출신의 현역 장교가 있는 생도는 총 11명으로 이 중 최현호 생도(남, 20세)는 아버지 최규화 중령(3사 31기)과 누나 최윤서 소위(3사 58기)의 뒤를 이어 정예장교로 가는 길을 함께 걷게 되었다. 최현호 생도는 “아

비지와 누나의 뒤를 이어 육군3사관학교로 입학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최정에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해 생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외에도 병 의무복무를 마치고 부사관 복무에 이어 생도로 입교하여 세 번째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된 생도는 12명으로, 박성수(남, 23세) 생도는 육군 병장 및 임기제 부사관으로 복무, 23년 1월 전역 후 3사교 생도로 입학하게 되었다. 박성수 생도는 “군에 복무하면서 장교의 꿈을 꾸게 되었다. 다양한 신분으로서의 복무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숭선수범하는 장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격증을 7개 이상 최대 13개까지 보유한 자격증 다수 보유 생도도 10명에 달했으며, 류은재(남, 20세) 생도는 전산, 무도 등 13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도 자격은 도합 11단에 이른다. 영국 서식스 대학교를 졸업 후 귀국하여 입교한 김미현 생도(여, 23세)를 비롯하여 해외 유학 중 장교의 길을 걷고자 입교한 5명의 생도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장교의 뜻을 품고 입교한 인혜민(여, 24세) 생도는 “도전하는 사관생도이자 누구보다 앞장서는 방패가 되어, 빛나는 꿈과 미래를 위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입학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학교장(소장 이용환)은 “학교의 교훈인 조국·명예·충용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각자의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라며, 국가에 충성을, 국민에 헌신을, 가슴에 큰 꿈을 품는 정예장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생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공과목과 군사학을 이수하고 졸업할 때 일반학과 군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되며,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한 정예장교로 성장하게 된다. 주무관 길진규



입교 등록 및 환송



가입교식



총기수여식

# “ 61기, 5주간의 충성기초훈련 ”



각개전투

61기 사관생도들이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5주간의 충성기초훈련을 진행했다.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휘역량강화교육을 시작으로 생도 기본자세 체득, 필수 전투기술 이해를 위한 개인화기, 전투부상자처치, 각개전투 등의 훈련, 그리고 사관생도의 규범과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소양과 태도를 구비하였으며, 61기 사관생도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행군

재교생들이 신입생도의 입교를 환영하고 격려하며 맞이하는 행사



호랑이굴행사



세심의식

신입생도들의 새로운 생활을 위한 마음과 각오를 다짐하는 행사



수료식

## 합동성 강화를 위한 안보견학을 다녀오다!

### 합동작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임관 전 교육

임관 전 59기 4학년 생도들이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합동성 강화를 위한 안보견학을 다녀왔다. '합동성 안보견학'은 육군 장교 임관을 앞둔 4학년 생도들이 임관 전 연합 및 합동작전 이해 등 기본역량 구비를 위해 연합·합동·작전에 대한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견학은 연합사, 지작사, 7군단, 특전사, 해병대사, 방첩사, 합참, 수방사, 육군본부, 2작전사를 방문해 연합 및 합동작전의 중요성과 아전의 특성, 타군의 임무와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안보의식을 고취했다.

생도들은 1일 차에 연합사와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해 미군 작참



7군단방문 기념사진



수방사 장비견학

부장과의 대화 및 연합작전체계에 대해 소개 교육을 받았다. 이후 지작사를 방문, 지작사와 지구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과 대화력전 수행본부를 견학했다. 그리고 7군단을 방문해 군단 일반현황 소개 및 군단장 간담회 후 군단의 주요장비 견학을 실시하고, 특전사에서 강하훈련 VR 체험, 장비전시, 전투력 회복센터 등을 견학했다.

2일 차에는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부대 소개 및 해병대 역사관을 견학 후 방첩사, 합참, 수방사를 방문, 수방사 소개 교육, 대테러 작전 장비 견학, 수방사령관 및 선배 장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으며, 3일 차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육본과 2작전사를 방문 후 학교로 복귀했다.

학교장(소장 이용환)은 "앞으로도 사관생도의 합동성 배양과 올바른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을 위해 합동성 안보견학을 지속 발전시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한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령 한상미

## 기훈생도를 위한 공감형 정신전력교육

### 이해·공감하기 쉬운 군인정신 함양 콘서트로 큰 호응

지난 1월 19일, 61기 기훈생도들을 대상으로 공감형 정신전력 교육인 군인정신 함양 콘서트를 개최했다.

기훈생도 대부분은 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고,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일반적인 강의식 교육으로는 흥미를 유발하거나 훈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민간인의 신분에서 군인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기훈생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공감형 정신전력교육인 군악대와 함께하는 군인정신 함양 콘서트를 기획했다.

콘서트는 먼저 일제강점기 역사를 주제로 뮤지컬 영웅의 OST '그날을 기약하며'와 독립군들이 불렀던 '독립군가'를 통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군인정신 함양 콘서트를 함께하고 있는 군악대와 61기 기훈생도들

노력했던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확고한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연평도 포격전으로 사망한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가 쓰신 글을 토대로 만들어진 곡 '엄마는 울지 않는다'와 '아름다운 나라'를 연주했다.

다음으로 태극기 휘날리며 OST '행복한 나날' 연주곡을 듣고, 군가 메들리를 함께 부르며 대한민국 국군과 군인정신에 대해 알아보고, 중성기초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훈생도들을 응원하기 위해 '슈퍼스타'를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마지막으로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기훈생도 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응원의 영상편지였다. 콘서트가 끝난 줄 알았던 기훈생도들은 부모님의 영상편지가 나오자 깜짝 놀라며 웃었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현재 61기들은 지난 1월 11일 입교등록부터 2월 16일까지 약 5주간의 중성기초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여 2월 19일 입학식을 거쳐 정식 사관생도가 되었다. 주무관 길진규

# 생도대 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시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 주인의식

작년이 끝나갈 무렵부터 교관님 교수님, 훈육관님들이 60기들에게 교육 중간중간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이제 곧 너희가 생도대 주인이네? 좋겠다', '곧 생도대 주인이 바뀌겠구만' 등 '주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다

그래서일까? 당연하게 해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항상 왁자지껄 떠들며 이동하던 식사 출발 간 보행 군기가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고 있으며, 복도나 길에 버려진 휴지 같은 쓰레기들을 보면 서로 주우려는 모습도 보인다.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 비뻔했던 식당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의 중대 식판 보관함도 닫지 않던 생도들이 지나가다가 다른 중대 식판 보관함을 닫아 주며, 훈련 끝나고 엄청난 배고픔에도 뒤에 동기들을 위해 정량배식을 지키는 모습도 보인다. 60기가 앞으로 1년간 생도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 조금씩 주인의식을 키워가고 있다.

## 아직 두려운 선배 생도의 자리

이제 60기 생도들이 '선배 생도'라 불리는 4학년이 된다. 동계군사훈련까지 우리를 지도하던 59기 생도들을 보며 '우리 이렇게 지도하지 말아야지' 하며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다가올수록 설렘보다 부담감이 더욱 크다. 어떻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우리가 바라던 이상적인 좋은 선배 생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고민에 빠져 있다

59기 선배 생도들도 작년 이맘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을까? 만약 같은 마음이었다면 60기가 생각한 것보다 59기는 훨씬 이상적이고 훌륭한 선배 생도였을지도 모른다. 후배인 것에 익숙한 것일까? 아니면 아직 선배 생도의 자리가 두려운 것일까?

## 적용해야 하는 것에 적용하라

일주일이면 생도 한명 한명 분위기를 간파하시는 훈육관님과 요원님들 그리고 여러 성향의 선배생도님들을 당최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성향이 험뻑겨지거나, 혹은 꼬집혀서 얼얼하거나 여러 종류의 따끔함을 후배생도들은 느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에 적용해야 한다. 말장난 같아 보이는 이 말이 체감될 때쯤이면 어느새 봄이 반길 것이다. 인내에 적응해라, 인내하라 또 인내하라. 그러면 4월이 올 것이다

## 새해

2023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다. 각자의 위치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새해가 되고 서로 축복하고 축복받아야 하는 지금이지만 풀어진 분위기를 틈타 또다시 행정예규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생도들이 생겨나고 있다.

“어차피 이제 임관인데 뭐 어때!”, “이제 우리가 4학년인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장차 대한민국의 장교로 거듭날 사관생도로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마음가짐이 무엇이었던지 다시 상기하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 산이 아니라 언덕

우리는 지난 5주, 1년, 2년 동안 바쁘게 달려온 이유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가파른 산의 정상에 향해 오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토록 바라고 원해왔던 가파른 산의 정상은 사실 산이 아닌 산의 입구로 가는 언덕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61기는 입학 후 정신없고 바쁜 생도 생활이 기다리고 있고 4학년으로 진학하면 '선배'라는 막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고, 임관 후에는 진정한 군 생활인 장교로서의 시작이라는 산을 마주할 것이다. 마주한 산의 입구를 보며 기뻐할 것이 아니라 계속 정상으로 향할 준비와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이름, 부모님

1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큰이들 병천입니다. 자신만만하게 편지를 써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막상 글을 쓰려 하니 어색하기만 합니다. 저의 표현이 그동안 한없이 부족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충성기초훈련 지도생도로 선발된 후 오랜만에 1년 전 작성하였던 수양록을 보았습니다. 온통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집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장교가 되겠다는 다짐 아래 1년을 보냈고, 지금은 어엿한 4학년 생도, 이순신 중대의 중대장 생도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결국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던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항상 자랑스러운 아들 멋진 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능률한 군인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 아버지의 뒤를 따라 3사관학교에 입교했습니다. 막연하게 꿈만 꾸던 사관생도의 길을 걷기 시작한지 5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충성기초훈련을 통해 인내와 도전을 배웠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지도생도님들, 동기들을 보며 한 번 더 인내하고 도전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사관생도로서 인내와 도전의 가치를 되뇌어보며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막내딸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강조하셨던 '신뢰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원리원칙을 지키며 겸손하게 생활하겠습니다.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으나, 충성기초훈련 간 느낀 점과 부모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 61기의 특이한 경험들

60기 기자생도 강준성

요즘 생도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충성기초훈련을 잘 마치고 정식 사관생도가 된 61기 생도들이 아닐 것이다. 다양한 환경에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61기 사관생도들 가운데 특이한 경험을 했던 생도 몇 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해보았다.

### 61기 노형균 생도 - 병장 만기전역, 부사관(1년 6개월) 전역 후 입교

#### Q 3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주변에 같이 복무했던 간부님들의 추천으로 장교에 흥미가 생겼으며, 장교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조사하던 중 3사관학교를 알게 되어서 지원한 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 Q 꼭 장교의 길을 가자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

A 장교들이 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장교로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변의 말들과 추천이 저를 장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대의 대대장님과 작전과장님이 3사관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셨으며, 작전과장님이 3사 훈육관 출신으로 학교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알고 있는 내용도, 모르는 내용도 배울 것이지만, 이전보다 더 깊게 배우며 새롭게 느낄 것이기 때문에 2년의 생도 생활에서 배울 점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저에게 가료등과 같이 환한 불빛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 61기 위인욱 생도 - 학창시절, 7년간 중국에서 유학 후 입교

#### Q 3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 정도 중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해서 재외국민전형으로 입시를 시작해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이후 용사로 입대하여 국방부 인사병으로 복무했고 이후 전문하사를 하면서 부소대장과 인사 업무를 병행했습니다. 전역 후 진로 고민을 하던 중 부모님의 추천과 더불어 나의 조국을 지키고 싶다는 애국심으로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 Q 유학 생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

A 고등학교 때 사드 문제로 중국 시민이 한국 사람들을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관의 요청으로 공인들이 한인타운 전체를 보호한 적이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우리나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느끼고, 조국이 있어야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61기 나은비 생도 -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로 국방부장관상 수상 이력 보유

#### Q 3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저는 3사관학교에 이전에 2번 지원해서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로 활동할 때 제2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23-1차 여단장생도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사관생도의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불타올라 꼭 되고 싶다는 생각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원서를 냈고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Q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A 꿈을 향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군이라는 집단의 특수성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폭넓은 경험은 저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끌어주었던 이정표이자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 Q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합격 후 입교했는데 현재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A 저는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포기하지 않아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관생도라는 신분은 치열했던 나의 가장 젊은 패기이자 세상을 향한 위대한 발자취가 될 것 같음과도 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꿈꿔왔던 생활을 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 2024년 사관생도들의 버킷리스트

60기 기자생도 이재원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누구든 다이어리 혹은 블로그, 일기장 등과 같은 종이 한 단락에 버킷리스트를 적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2024년을 맞아 생도들은 각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 생도들이 2024년에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 60기 버킷리스트

**A생도** : 동기들과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지역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가족과도 같은 동기들과 여행하고 많은 사진을 남겨가며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B생도** : 올해 61기를 가르쳐 주는 지도생도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했던 61기 후배들과 더 친해져 가족 같은 사이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같은 공통의 취미를 함께하며 살갑게 다가가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C생도** : 토익 800점 달성하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요즘에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많은 기회를 주고 있기에 생도 생활 동안 자기개발을 통해 토익 800점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D생도** : 현재는 없어진 생도대의 팔굽왕 선발대회가 부활한다면, 많은 지원자와 경쟁을 통해 생도대 팔굽왕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도들에게 체력 또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기에 꾸준히 운동하고 노력하여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생도** : 2023년, 생도대의 강철전사 경연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쉬웠던 마음도 컸던 대회였고,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기면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새로운 이름으로 진행될 강철전사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작년의 나 자신을 뛰어넘어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 61기 버킷리스트

**A생도** :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축구, 풋살을 선배, 동기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사관생도가 되었고, 사관생도들의 체육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도가 기초군사훈련 간 풋살장을 보며 선배님들과 공을 치는 것이 로망 중 하나였습니다.

**B생도** : 정복을 입는 것이 로망입니다. 기초군사훈련 간 다양한 파복류를 보급받으면서 낯설었던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었으며, 또한 의식 행사와 입학식을 통해 예복도 입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엿한 사관생도가 되었으며, 사관생도의 가장 큰 멋진 정복을 입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예복과는 또 다른 멋진 정복을 입고 사랑하는 가족 또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고 싶습니다.

**C생도** : 시간적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초군사훈련 과정을 통해 61기 생도들은 군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겪어본 시간 통제는 밖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었고, 엄격한 통제 속에서 시간 활용을 잘해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사관생도로서 시간적 여유를 많이 만들어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D생도** :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서 임관하기입니다.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옆에 있는 동기들과 함께한다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포기하지 않고 임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 새로운 여단 본부의 출발, 첫 지휘근무교대식

60기 국장생도 이 주형



“외적 군기와 기강이 확립된 활발한 생도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단 본부의 지휘 방식은 학교장님을 포함한 간부님들의 말씀처럼 현 안보실태에 맞는 군기 및 대적관 확립입니다”  
“학교 여러 간부님들과 밀착하여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여단 본부가 되겠습니다”  
“협력과 시간 엄수를 장착한 여단 본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2024년 새로운 지휘근무생도들과 여단 본부의 출발을 알리는 24-1차 지휘근무교대식이 진행됐다. 이로써 전호민 여단장 생도를 비롯한 지휘근무생도들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여단 본부는 여단장, 부여단장 생도를 비롯해 군수, 인사, 정보, 작전, 교훈, 지휘통신, 정훈 부서의 참모, 그리고 각 실무업무를 보는 인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신문사에서 새로운 여단 본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 위해 각 부서 참모들과 여단장 생도를 만나봤다.

## 지휘근무교대식의 시작, “생도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이 막중하게 다가옵니다”

**전호민(여단장 생도)** : 여단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선발 결과를 본 당일로부터 지휘근무교대식을 거쳐 정식으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맡은 바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생도여단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채희동(군수참모)** : 설레면서 새롭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만약 제가 실수를 한다면, 우리 생도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생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민경(인사참모)** : 그동안 꿈꿔왔던 직책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반,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대한 걱정 빈인 것 같습니다. 60기가 진학하고, 61기가 입학하는 24-1차. 새롭게 시작하는 여단 본부의 참모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김동희(정보참모)** : 계속 기대해 왔던 일이면서 제가 맡은 첫 직책입니다. 지휘근무교대식이 제게 있어 그 누구에게도 못지않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유혁준(작전참모)** :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저나 1년처럼 열심히 할 것이고, 뛰어난 24-1차 여단 본부 인원들과 이를 운영할 생각에 큰 기대가 됩니다.

**한가은(교훈참모)** :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반년을 알차고 깊게 보낼 생각에 설레고 업무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지만, 그만큼 제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일을 해야 하기에 걱정이 됩니다. 빠르게 적응하고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남현우(지휘통신참모)** : 지휘근무 교대식이 다가온 날 혼란과 긴장을 함께 느꼈습니다. 새로운 여단 본부의 출범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휘관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성과를 잊지 않고 지휘근무의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복잡미묘한 감정입니다.

**고태영(정훈참모)** : 새로운 시작을 할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 지원 계기, “고민 없이 지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호민(여단장 생도)** : 우선 여단장 생도라는 직책이 단지 멋있어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저 자리에 맞는 사람일까?’ 라는 고민을 수차례 한 결과 건강하고 도전적인 생도여단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채희동(군수참모)** : 이전부터 군수업무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회가 되어 23-1차 중대 군수보좌업무를 수행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후 주변에 군수참모생도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오늘입니다.

**곽민경(인사참모)** : 과거 좋은 기회로 인사보좌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수와 친해질 기회가 있었는데 인사참모 업무에 대해 많이 물어보고 또 멋지게 수행하시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또한, 생도대에서 맡을 수 있는 인사와 관련된 직책 중 가장 높은 직책을 수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희(정보참모)** : 정보참모가 된다면 생도들에게 보안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식시키고 싶었습니다.

**유혁준(작전참모)** : 1년간 생도 생활하며 보고 배운 것이 많았지만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선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임무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단에 지원하였습니다.

**한가은(교훈참모)** : 입학하기 전부터 여단 본부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단 본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생도여단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고 많은 사람과 접촉하며 좋은 추억과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남현우(지휘통신참모)** : 생도여단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도전과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배우는 기회를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고태영(정훈참모)** : 인구 감소로 3사 지원자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학교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 직책 소개, “필요할 때 꼭 찾아주십시오!”

**전호민(여단장 생도)** : 여단장 생도의 업무는 생도 지휘근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휘 및 감독하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생도여단이 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채희동(군수참모)** : 생도들이 사용하는 보급품을 차질없이 전해주려는 직책입니다. 보급품을 각 중대별로 분배하는 것이 제 직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배 후에도, 보급품에 이상이 있거나 불량이 있다면 이를 종합해서 보고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곽민경(인사참모)** : 생도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명부부터 시작해서 출타자, 면회자 등을 종합하며 학사일정과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고 생도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희(정보참모)** : 일반학기 때는 생도들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전파 및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군사학기에는 각종 군사 보안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유혁준(작전참모)** : 사관생도 행정예규 중 작전 분야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생도 학습군기 및 생도들의 당직근무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가은(교훈참모)** : 생도들의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총괄합니다. 교내에서 시행되는 토익시험이나 자격증 특별시험들을 관리하고, 생도들의 성적 관련 업무 및 교수부 학과 업무를 지원합니다.

**남현우(지휘통신참모)** : 생도여단의 전산장비를 관리합니다. 생활관에 설치된 데스크톱, 프린터, 모니터, 개인 노트북 등을 관리하고, 고장 또는 오류 발생 시 전산실 및 교육개발실과 협력하여 조치합니다. 또한, 매달 사이버보안 진단 주관: 방송부와 택배 시스템 관리 등 통신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고태영(정훈참모)** : 학교 행사와 관련해서는 진행, 생도들을 대상으로 전파할 내용에 대한 홍보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도들에게 정신전력 교육을 담당하거나 필요시 정훈실과 협력하여 촬영을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칼럼 I

### 졸업생도들에게 전하는 장교의 역할에 대한 제언



중령 박찬용  
(사회학처 경제경영학과장)

“2년간의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임관하는 59기 생도들의 멋진 군 생활과 초급간부로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일반학 교육을 담당한 교수로서, 軍 선배로서 59기 졸업생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생도들은 지난 2년간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 바쁜 일과를 소화하였고, 장교단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에 대해 배워왔다. 그러나 졸업하는 시점에서 장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해도 좋을 듯하다. 중요하기에 간절한 심정으로 상기시켜 보고자 한다. 대부분 주로 배운 軍 조직에서 장교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첫째, 장교는 부대를 지휘, 통솔하는 '지휘통솔자'이다. 전술제대의 리더로서 부대를 작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비부대를 운용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장교는 부대를 유지, 관리하는 '부대관리자'이다. 평시에 부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력획득 및 유지, 무기/장비의 상시가동을 위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인력과 장비의 관리하는 평시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셋째, 장교는 부대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교육자)'이다. 전시 전술 제대로서 상급부대 및 상급지휘관의 작전 의도에 부응하기 위해 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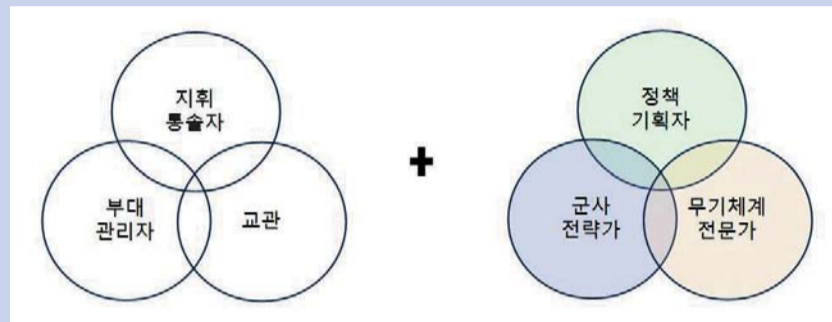
다. 그러나 그것은 장교가 '군사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간과한 면이 있다. 정책부서에서 요구되는 장교의 역할을 고려하면 '군사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장교는 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 기획자'이다. 미래에 예상되는 안보위험을 분석하여 국방목표

미래 군사력 건설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장교는 앞에서 말한 '군사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래무기를 기획하고 획득하는 '무기체계 전문가'이다. 미래에 군에 요구되는 능력과 현재 군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능력 간의 차이(Gap)를 메우기 위해 요구되는 미래 무기체계/장비에 대한 수요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에게 무기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와 해박한 무기체계 지식이 요구된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졸업하는 생도들이 장교의 역할을 '지휘통솔자', '부대관리자', '교관(교육자)'의 역할을 전부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작전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정책영역의 업무에는 경험과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일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지만, 한때는 야전부대와 정책부서에서 고군분투했던 선배로서 다양한 장교의 역할에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힘찬 군 생활을 시작하는 초임장교들이 장교단의 다양한 역할을 이해하고 그에 상응한 군 생활을 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졸업생도 모두 승승장구를 기원한다. 59기 화이팅!



부단히 교육훈련에 매진해야 하며, 훈련계획 작제는 실습계획표를 내실 있게 작성하고 훈련을 준비하여 효과 있게 교육해야 하는 교관 임무를 수행한다. 부사관이 공용화기 교관 임무를 수행한다면 장교는 팀훈련, 전술훈련 완성에 책임이 있다.

앞서 말한 세 가지는 야전부대에서 요구되는 역할로서 많은 교관, 훈육관을 통해 교육받고 알고 있는 내용이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개혁방향, 인력정책, 군수정책 등 각 분야의 국방 및 육군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장교는 설정된 국방목표 및 국방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전략을 수립하는 '군사전략가'이다.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합동작전운영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뒷받침하는

칼럼 II

### Suffering is Optional



중령 김동환  
(공학처 건설공학교수)

올해 1월 중순, 61기 기훈생도들을 대상으로 전공학과 소개 시간에 건설공학과를 대표하여 학과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기훈생도들을 보니 20여 년 전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제가 생각났습니다. 학과를 대표하여 건설공학과를 소개하게 되었지만, 건설공학과로 반드시 와달라는 부탁보다는 기훈생도들이 어떠한 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든 2월 기초군사훈련이 끝나고 입학식이 열리는 날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 기초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방법 두 가지를 소개했습

니다.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생각을 단순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로 마라톤을 시작한다면 마라톤을 완주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 사실은 바로 한 발이 지면에 닿기 전에 다른 한 발을 들어 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생도 3학년 때 15km 단축 마라톤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10km 지점을 지난 지점부터 걷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생각을 단순화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 완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는 기과생도에게 굴복할지언정, 정신은 절대 기과생도에게 굴복하지 말고 정신적 자유를 간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한 열차려를 받거나 기초군사훈련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신체는 피로해져서 군사훈련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기훈생도들의 정신력을 약화시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신만은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10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에세이 "What I talk about when I talk about running"이라는 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파리의 한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신문에 실린 마라톤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몇몇 유명한 마라톤 선수들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42.195km 동안 그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42.195km를 계속해서 달리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며, 만약 마라톤을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주문을 걸지 않으면 거기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에세이에서 한 선수의 만트라(mantra, 주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 Say you're running and you start to think, Man this hurts, I can't take it anymore. The hurt part is an unavoidable reality, but whether or not

you can stand any more is up to the runner himself. This pretty much sums up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marathon running."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괴로워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뛰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느낍니다.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은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것은, 그 달리는 사람,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라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기초군사훈련 때 엄청난 열차려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몸은 고통받고 있지만, 나의 생각은 1분 1초가 자유롭다고, 나는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확실하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만트라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라톤에서 42.195km만큼 중요한 사관생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자신만의 만트라를 간직하기를 기원합니다.

명예 칼럼리스트 칼럼



**김병일**  
(현 도산서원 원장,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신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도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프랑스 철학자 알랭(1868~1951)은 “행복은 의무이다. 자기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해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행복은 바란다고 저절로 오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덕·체를 고루 갖추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와 밀접한 ‘덕’이다.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 상대를 높이는 배려와 존중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러면 이와 같은 덕목들이 가장 요구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다. 리더가 아랫사람을 대할 때 겸손과 존중으로 대하면 그들이 감복하지 않을 리 없다. 부모가 자녀를, 교사가 학생을,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감사한 마음이 솟구쳐 일도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고,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준 윗사람을 더욱 존경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윗사람은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아랫사람에 둘러싸여 행복해지

나는 전력과 전술 등의 기술력이며, 마지막 하나는 장병 개개인의 사기와 상호간 전우애 등과 관련된 정신력이다. 이중 정신력이 특히 중요하다. 좋은 무기와 작전 계획을 갖추었다더라도 장병의 사기와 전우애가 저하되면 패망할 수 있음을 세계 전쟁사가 무수히 입증한다.

사기와 전우애는 부대원 상호 간에 사랑하고 공경하는 인간관계에서 주로 싹튼다. 상사는 부하를 ‘인간적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하고, 부하도 상

들은 나와 남은 하나라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사상과 자기 인격을 먼저 수양하고 나서 남을 편안하게 하는 수기안인(修己安人)을 몸소 실천하였다. 그렇게 숭선수범하였기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간인 신분임에도 의병장으로 나서면 평소 존경하던 수많은 백성이 목숨 걸고 따랐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비인 퇴계 선생(이황 1501~1570)은 비록 전쟁 시기를 살지 않았지만, 평생 겸손과 배려, 존중을 모든 사람에게 실천했다. 그 결과 선한 영향력을 받은 그의 제자들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키거나 조정에서 구국의 명신으로 활약했다. 뒤에 일본의 침탈로 나라가 기울어졌을 때 선생의 고향 안동에서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이 배출된 것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옛날 신분 사회에서도 이처럼 지역 구성원 상호 간에 사랑과 존경이 넘칠 때 공동체는 단결되어 큰 힘을 발휘하였다. 사기와 전우애가 무엇보다 중요한 오늘의 군인 장병들도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삶을 본받는다면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우리 군의 미래 지도자가 될 사관생도는 이 점을 뼈속 깊이 되새기면 좋겠다.

## 사랑과 존경이 행복과 국방의 특효약

고, 조직과 공동체는 화목한 가운데 능률이 올라갈 것이며, 갑질 문화도 멀리 사라질 것이다.

이 같은 인간관계는 군대에서 더욱 절실하다. 장병들의 행복 조국의 안보까지 심대하게 영향을 끼치기에 그렇다. 군은 전투력이 핵심이며 생명이다. 사회의 다른 분야를 실패하면 대체자원이 있지만 군대는 단 한 곳이라도 풀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중요한 군의 전투력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무기와 병력 같은 물리력이고 다른 하

사를 ‘인간적으로’ 공경하고 따라야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사가 부하의 잘못을 지적하면 더욱 잘 통솔되고 부하가 상사의 부당한 점을 진언하면 더 잘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대원 모두가 행복해지고 정신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 자명하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보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바른 인성의 모델을 우리 선비문화에서 배우기를 권한다. 선비야말로 우리 역사 속 진정한 리더들이기 때문이다. 선비

저명인사 칼럼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 정부는 올해 6월 초에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될 정상회의는 역대 최초로 자 현 정부 최대 규모 다자회의가 될 전망이다.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G7과 G20,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 계기를 활용하여 10여 개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들 정상회담 중에는 수교 이래 아프리카 3개국(모리타니아, 부룬디, 에스와티니) 최초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한,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인 모로코와도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해 AU의 G20 가입을 지지하는 등 AU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도 표명했다.

많은 이들이 왜 갑자기 아프리카인가?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이미 전 세계는 아프리카의 잠재성과 성장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

의 최근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아프리카는 인구 증가와 청년층, 풍부한 천연자원, 세계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로 인해 세계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 GDP는 이미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배나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의 GDP는 7.6배나 급증했으며, 가나와 탄자니아, 이집트의 GDP도 각각 5배,

프리카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 기업인 SK온, 고려아연, 포스코인더스트리얼, LG에너지솔루션 등도 ‘광물투자사절단’을 구성하여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 민주콩고, 나미비아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지리적 위치도 유리하다. 아프리카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대부분 대륙과 해상 무역에 유리하다. 아프리카 대륙 54개국 중 38개 나라가 바다와 접하고 있다. 나머지 내륙국들도 최소 하나의 이웃 국가를 통과하면 공해에 접근할 수 있다. 특

이처럼 한국은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에너지, 자원과 경제개발 분야 등에서 실질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려 노력해왔으나 그효과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포괄하는 범위는 인도양 연안 10개국(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남아공, 모잠비크, 소말리아,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코모로, 세이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아프리카 국가들과 해양안보 협력 등 협력 분야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는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써 안보리 논의의 약 7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안보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우리와 아프리카의 관계도 개발 협력뿐 아니라 경제교류와 안보 이슈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아프리카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분명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아프리카가 우리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것 중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것과 아프리카와 정상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의 이해관계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4.6배, 3.7배씩 증가했다. 또한, 우리를 포함해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이 고령화하고 있는 데 비해 아프리카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에 불과하다. 인구의 약 70%가 30세 미만이며, 약 40%는 14세 미만이다. 이는 아프리카가 적어도 향후 30~40년 동안 성장하는 젊은 소비 시장과 충분한 노동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프리카 대륙은 엄청난 양의 다양한 천연자원까지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광물 매장량의 30%, 석유 매장량의 12%, 천연가스의 8%가 아프리카에 있다. 또한,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0%를 보유한 대륙이기도 하다. 이미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아

프리카 대륙은 지리적으로 대서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해 중동과 유럽 등 여러 지역을 잇는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위치는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중동 등을 효율적인 무역 경로로 연결해 준다. 한국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 중에 ‘코리아 이너셔티브’라는 대아프리카 원조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 강화에 노력해왔다. 같은 해 외교부 중심으로 각료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아프리카 포럼’을 창설하고 3년마다 개최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11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을 순방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3개국을 순방했다.

2024 트렌드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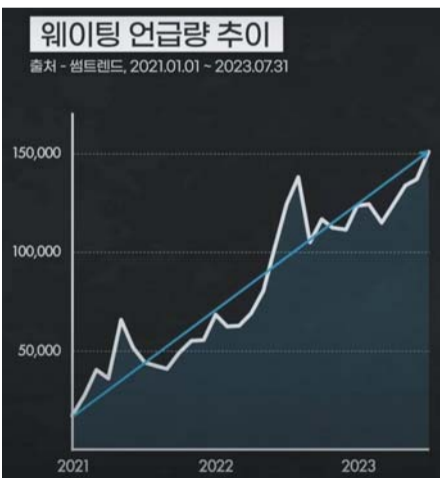
정석환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팀 연구원

트렌드를 관찰하기 위해 딱 하나의 영역만 보아야 한다면 **식(食)일 것이다**.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관련이 있고, 소비빈도가 잦고,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식(食)의 트렌드는 시기적으로 크게 **코로나 전과 코로나 시기, 코로나 이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강화된 키워드들은 '닭가슴살', '운동식단', '모닝루틴' 이 있다. 운동하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건 꾸준히 강화될 트렌드로 보인다. 두 번째는 코로나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다가 코로나를 겪으며 학습하고 그 후 더욱 진화한 패턴이다. 대표적으로 '밀키트', '제로', '웨이팅' 등이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코로나라는 제약 조건 속에서 니즈가 발생했고, 그에 맞춘 제품 및 서비스가 쏟아져 나왔으며, 그 결과 소비자가 더욱 학습하게 되어 수요와 공급이 함께 커지고 확장 및 진화가 계속되는 분야라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가 끝날 때쯤 등장하여 발견된 패턴이다. '하이볼', '페어링', '오마카세'의 키워드가 여기에 해당된다. 생활변화관측소는 이러한 패턴을 취향에서 지식으로 깊어지는 경험이라고 본다. '페어링' 이나 '오마카세' 와 같은 키워드는 셰프의 기호도, 손님의 취향도 아닌, 지식과 안목의 영역에 가깝다.

**'웨이팅'의 핵심은 '긴 줄'이 아닌, 강화된 외식 생태계와 사회 변화**



경험에 해당하는 영역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웨이팅'이다. "2시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햄버거", "웨이팅 없이는 못 먹는 도넛" 등과 같은 것들은 소셜미디어나 뉴스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다. 그렇지만 트렌드를 보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줄 서는 모습 이면의 맥락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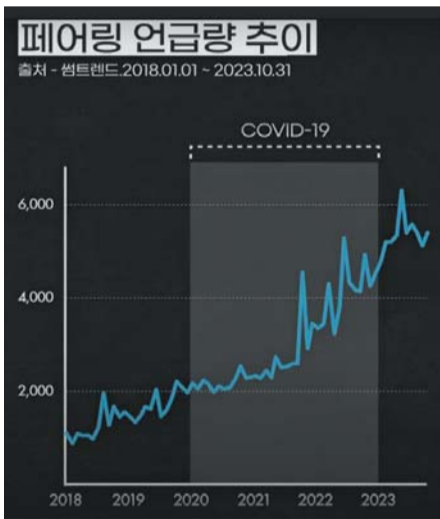
# '웨이팅' 과 '페어링' 으로 보는 식(食) 트렌드

안의 기회를 엿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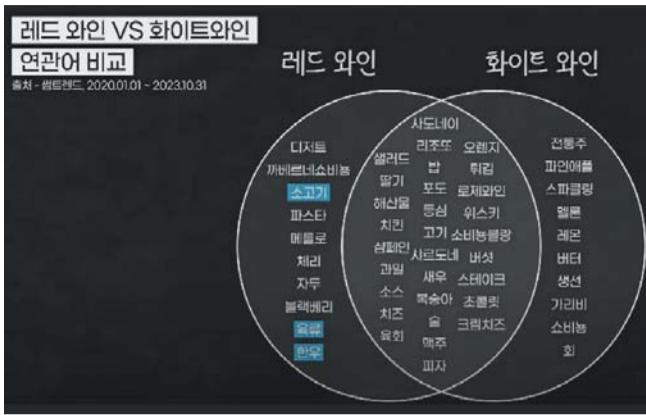
지난 2년간 정말 많이 언급된 웨이팅은 한편으로 강화된 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맛집이라는 공간, 웨이팅이라는 행위, 그리고 그걸 돕는 앱(APP)이 삼위일체처럼 작동하는 모습이 특징이기도 한데, 이는 단순히 식(食)문화 트렌드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수직적 문화에서 수평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증거로 볼 수도 있다.

접대해야 하는 어려운 사람을 모시고 웨이팅이 있는 식당에 갈 수는 없는 법. "예약을 받지 않아 웨이팅을 해야 하는데, 같이 갈래?" 하고 말할 수 있는 사이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법이다. 트렌드는 개인의 기호가 아니라 사회의 합의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웨이팅' 또한 희소한 식사를 위해서는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

**취향이 아닌 지식, 골조합이 아닌 '페어링'**



특정 조합이 내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몰라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페어링은 합의된 음식의 지식 체계를 배우는 것과 같다. '페어링'은 지난 코로나 기간 중 크게 상승한 '와인'의 상승과 궤를 함께한다. 주로 음식과 술의 어울림에서 많이 언급되는데, 이때 술은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술과 잘 어울리는 음식과 식사를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페어링은 취향의 영역이 아니라 지식의 영역에 가깝다. 술과 잘 어울리는 안주를 안다는 것은 곧 먹을 줄 아는 지식을 갖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치를 예로 들면, 한국인들이 지식 체계와 같이 합의한 페어링이 있다. 삼겹살과 먹는 구운 김치, 국밥과 먹는 깍두기, 수육과 먹는 김장김치 등 개인의 남다른 취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합의된 지식을 따르기 마련이다. 페어링의 담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에는 '하이볼'도 있는데, 하이볼은 식(食) 관련 키워드의 어떤 것을 보아도 상승하는 키워드이다. 비주얼부터 가성비, 접근성, 커스터마이징 가능성까지 트렌드가 갖춰야 할 요소들 전부 지닌 것이 특징이다. 하이볼이 포함된 음식 사진 한 컷은 하이볼과 어울리는 식사를 할 만큼 식사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음



식의 지식 체계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페어링은 웨이팅처럼 비단 식(食)문화에서 주목되는 키워드가 아니라 점도 주목해야 한다. 페어링은 소비자와 이용자가 직접 만들어내는 콜라보레이션으로 볼 수도 있다. 페어링이 가능할 때 브랜드들의 가능성도 커지는 법이다. 콘텐츠와의 페어링, 자연과의 페어링, 식품과의 페어링, 특정 시간대와의 페어링 등 그 확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다채로워지고 깊어지는 식(食)문화 경험, 그만큼 커지는 소외도 돌아봐야**

다만 '웨이팅'과 '페어링' 상승이면서 소외라는 이면도 존재한다. 우리 사회가

먹는 것에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더 좋은 식사를 경험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먹고 사는 어려움이 있던 시절을 지나 더 여유로운 사회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여유는 이러한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상에게만 해당된다. 디지털성이 강화되는 만큼,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해 어디를 가면 좋은지, 나아가 맛집이 눈앞에 있어도 어플이 없으면 입장이 안 되어 힘들음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범주를 폭넓게 상상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 누구도 시스템 의한 소외를 하지 않도록 고민을 하는 것 또한 지금 시점 매우 중요한 트렌드이다.

**알고리즘이 서로를 밀어내는 지금 시대, 트렌드를 통해 타인의 경험을 읽고, 서로를 이해하는 경험이 되길**

올해 생활변화관측소는 <2024 트렌드 노트>를 통해 #페어링 #웨이팅 #웨이케이션 #추구미 #서브컬처 #DE #제로OO #OO프리 #서울의정체성 등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중요한 점은 키워드에서 생각을 멈추지 않아 보는 것. 키워드에서 고민을 멈춘다면 나도 모르게 타인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렌드는 긍정이나 부정이 없다. 늘 중립이기 때문에 현상에 대한 거친 가치판단적 태도는 되레 나와 세상의 거리를 늘린다. 알고리즘이 서로를 밀어내는 지금, 데이터와 트렌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를 읽어 기회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 동문(同門)의 소리 I

## 외국어의 문을 두드려라! 우리도 할 수 있다!



대위 안 현준(3사 51기)  
28사단 전차대대, 연세대 국제학 석사  
TOEIC 990

2023년 10월, "2023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및 에어쇼)"라는 대한민국 국군의 축제가 서울공항에서 진행됐다. 필자는 국방부 TF 자격으로 해당 행사에 파견 및 통역장교로서 2주간 임무 수행했다.



특히, 행사 환영 만찬 간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 덴마크 대사, 카메룬 해군 소장 등 국가별 행사에 참석한 군사적 주요 인사분들의 중요한 말씀들을 한·영·프 3개국어로 순차 통역했던 일은 그해 최고의 행복으로 기억된다. 이 외에도 사단 내 연합사단 방문 행사 영어 진행, DX-K 장비 소개 외국어 담당, 국방어학원 프랑스어반 등 군 생활 간 외국어를 통한 많은 경험을 쌓고 있다. 필자는 태어나서 해외 유학 경험이 없다. 생도 시절 2년 내내 외국어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지만 생도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군 생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의 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군은 병과에 대한 장교들의 우수한 군사 지식과 리더십 등 세계화 시대에 발을 맞추는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즉, 외국어 능력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생도 생활을 하며 외국어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후배들, 잘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 첫 번째, 해당 구사하고 싶은 언어의 문화적 이해를 하자!

언어는 각 나라의 문화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그 나라의 영화나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음식을 맛보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구사하고 싶은 언어의 문화적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자. 이는 해당 나라의 사고방식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두 번째,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자!

대한민국에서 외국어 습득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신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주변인의 판단과 더불어 스

로 나서는 것을 꺼리며 눈치 보는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외국어를 시작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가짐과 동시에 주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세 번째, 외국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말하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도하라!

모든 언어는 말로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말하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완성도를 따지지 말고, 배운 대로 내뱉으며 계속 시도해야 한다. 필자는 생도 때부터 외박 간 시간이 가용할 때 이태원을 가서 외국인들을 잡고 "외국어 공부 중인데 잠깐 말하기가 가능해요?"라는 질문을 통해 2~3분씩 외국인들과 얘기하며 보완한 것이 계속 축적됐다. 그러한 시도와 노력이 지금의 통역장교로서 순차 통역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 네 번째, 꾸준한 노력이다.

지금의 외국어 능력을 위해 생도 시절부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생도 시절에 많이 부족했지만, 꾸준한 노력이란 것이 나의 무기였다. 많은 훈련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미루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단기간에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조급해지고 금방 열정이 식기 마련이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교는 우수한 군사학 지식과 지휘능력, 리더십이 중요하다. 외국어라는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많은 경험을 하며 더 넓은 안목을 갖게 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야 한다. 남 일이 아니다.

## 3사 동문이며! 외국어의 문을 두드려라! 우리도 할 수 있다!

## 동문(同門)의 소리 II

##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대위 이 석재(3사 55기)  
연세대학교 의학과 위탁교육생

생도 시절부터 지금까지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셨던 교수님에게 참 과분하고 감사한 부탁을 받았다. 후배들을 위해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것보다, 항상 주변의 도움을 받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담스러운 부탁이었다. 하지만, 필자가 받아온 만큼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용기를 내어 글을 써 본다.

인생에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잘 낚아채는다면, 누군가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다. 필자는 나름 전자에 속하는 행운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기회를 잡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느낀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싶다.

'인연을 소중히 하라'와 '준비되어 있어라'이다.

## 인연을 소중히 하라

필자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인가에 광적으로 매진하여 특출난 성과를 내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러했던 필자가 영예로운 대통령상을 받으며 임관하고, 국내 최고의 의학교육 기관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인연' 덕분이었다. 우리 중대, 우리 과에서 1등 졸업 한번 시켜보라며 응원해 주었던 동기들과 훈육관님, 교수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필자는 졸업식 단상 위에 서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첫 부임지였던 임진강 대대에서 최전방임에도 위탁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셨던 지휘관님들을 비롯하여 무사고 완전 작전을 위해 애써 주었던 소대원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의학과 위탁교육의 기회는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부족함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인연'은 생각보다 간과하기 쉽다. 필자는 그 '인연'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인연을 소중히 하라'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 준비되어 있어라

기회를 잡기 위해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굉장히 식상한 조언이다. '나는 항상 준비가 되어있었나?'라고 스스로 반문한다면, 필자도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어? 왜 준비가 되어있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준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의도한 준비'와 둘째, '의도치 않은 준비'이다. 첫째, '의도한 준비'는 자신이 정한 어떠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다. 동기부여가 강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완성도가 높으

므로 이상적인 형태의 준비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목표한 바가 있고, 부족한 점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되어있어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면, 이 '의도한 준비'는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의도치 않은 준비'는 자신이 스스로 정한 목표가 아니라, 남이 정해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동기부여가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고 경시하기 십상이다. 사관학교로 치면 졸업 인증을 위한 영어성적, 각종 자격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필자는 후배들에게 이 '의도치 않은 준비'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 필자도 한때 그러했듯이, 자기 스스로 어떠한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준비는 주어진 것을 착실하게 해내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관학교 졸업 인증을 위한 기준들이 군에서 선발하는 다양한 위탁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지원 자격이거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인연을 소중히 하라'와 '준비되어 있어라'는 함께 해야 의미가 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타월하고,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더라도, 본인이 최소한의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다면, 찾아온 기회를 잡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있고, 완벽에 가까운 개인이더라도,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경시한다면 누구도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글을 적다 보니, 굉장히 오만한 선배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걱정과 민망함이 몰려오지만, 후배들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잘 찾아내고, 낚아챌 수 있기를 바라는 선배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후배들이 3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감사함을 잊지 말고 선배들을 뛰어넘어 승승장구하기를 응원한다.



2024년  
의사고시 합격,  
3사 출신  
최초 의사!

대위 송은혜 / 52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군인의 길을 걸기로 결정한 본인의 선택을 믿고,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2년이라는 시간을 건강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사관생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병  
초군반(OBC),  
고군반(OAC)  
1등의 영예!

대위 박정환 / 55기

교육기관 및 야전에서 장교로 생활하며 느낀 점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 임관 후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앞에서 옆에 있는 선배, 동기들과 훈육관님들을 믿고 생도 생활을 마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며, 자부심을 가지고 멋진 군 생활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제 좌우 명처럼 후배 여러분들을 위해 모범이 되는 멋진 선배 장교가 되겠습니다!



### 총동문회, 2024년 시무식

지난 1월 4일, 서울 현충원에서 총동문회의 2024년 시무식을 거행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양수 1대 회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들과 총동문회 및 각 동기회 임원 등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며 올 한 해 총동문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염원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호국영령의 평안한 안식과 모든 인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동문 화합과 모교, 총동문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2024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3사 총동문회

##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 동문 여러분! 총동문회장 박주왕입니다.

희망찬 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기운으로 동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으로 큰 대과 없이 동문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작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남는 한해였습니다.

2024년은 2023년에 추진되었던 사업 중 미진하였던 사업은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총 동문회 참여의식 고취를 통한 화합단결, 모교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총동문회관 확장을 위한 초석 다지기 등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희망찬 갑진년 새해 모든 좋은 기운들이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  
회장 박 주 왕



### 육군3사관학교장 방문 및 현안 토의

지난 1월 18일, 육군3사관학교장 이용환 소장(26기), 교무기획실장 정연민 대령(34기)이 총동문회를 방문하여 박주왕 총동문회장 등 동문회 임원들과 함께 모교, 동문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의에서는 생도 임관 시 장기복무 군인사법 개정에 학교와 긴밀한 정보 교류 및 통합된 노력 집중, 총동문회와 학교의 교류 행사 정례화, 생도들의 총동문회 방문 활성화 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앞으로 모교와 총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통합된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3사 총동문회



### 고양특례시 동문회 창립

지난 1월 19일, 고양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고양특례시 동문회 창립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고양특례시는 인구 108만 명의 도시로, 고양에는 약 1,000여 명의 동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10여 년 전부터 일부 동문이 모여 인부를 전하고 생도 방문 시 격려를 해주는 등 제한적인 활동을 해오다가 이번 창립식을 통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많은 동문이 모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모교와 동문 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날 창립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및 많은 정치인이 참석하여 동문회 창립을 축하해 주었으며, 약 2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고양시에 육군3사관학교와 총동문회의 위상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황순용(14기) 초대 동문회장은 동문회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가장 모범적인 조직으로 발전되어 모교와 동문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을 다짐하였으며,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고양특례시 동문회 창립을 위해 노력한 황순용(14기) 초대 회장 및 준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3사 총동문회



### 생도 공수훈련(2차), 합동성 강화 안보견학 위문

지난 2월 5일, 총동문회는 공수훈련(2차) 중인 생도들과 합동성 강화 안보견학 중인 생도들을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수훈련은 작년 여름 교육에 미참석한 59기 4학년 사관생도 11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생도들이 자랑스럽다”며, “건

강하고 안전하게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 멋진 장교가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저녁에는 합동성 강화 안보견학 중인 59기 4학년 사관생도들의 숙소인 용인 한화리조트를 방문하여 350여 명을 위문하고 격려하였다. 박주왕 총동문회장은 생도들이 임관하면 총동문회의 일원이 됨을 설명하고 총동문회에 많은 관심을 요청하며, 2월 29일 임관식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3사 총동문회

# 학교 발전재단 소식

## 2024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4. 1. 1. ~ 2. 29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 (총 기부액), 단위 : 만원

**총 자산 95억 5천만원(2024. 2. 29. 기준)**

### ■ 단체

국민은행 1,000만원(총 1억 2700만원), 3사59기 동기회 3,000만원, 3사55기 동기회 500만원

### ■ 학교발전 동창특별기부자('24. 1. 1 ~ 2. 29. 기부현황)

김호길(육사#48 283), 두석주(육사#51) 2239, 류지민(육사#52) 215, 이우진(육사#54) 2(94), 변용성(육사#58) 2(133), 이주실(육사#59) 2(110), 김대영(육사#59) 2200, 문준석(육사#59) 2(100), 홍희중(육사#61) 2(129), 홍인재(육사#63) 2(62), 문준희(육사#67) 2(72), 김홍재(육사#71) 4(16), 한덕수(학군#26) 2(139), 남기웅(학군#29) 2(44), 구희곤(학군#32) 4(166), 송경태(학군#37) 2(56), 정우람(학군#46) 2(50), 홍현신(학군#48) 2(52), 유성국(학군#54) 2(7), 권영훈(학군#56) 2(20), 최재호(학사#29) 2(56), 임도현(학사#54) 2(135), 구주현(학사#58) 2(58), 임채훈(학사#58) 1(116), 성현애(학사#58) 2(78), 심정현(학사#58) 2(66), 최윤정(간사#38) 2(71), 송소연(간사#58) 2(52), 문길섭(준위) 2(14), 송승현(원사) 2(13), 강필승(군무원) 2(20), 이수진(군무원) 2(42), 정시연(군무원) 2(53), 최지욱(군무원) 2(7)

### ■ 졸업생 가족('24. 1. 1 ~ 2. 29. 기부현황)

조경해(#45 황정태 모) 10(960), 백인숙(#47 ○○○ 모) 2(67), 서종태(#48 서현우 부) 100(1,100), 성동모(#50 성열환 부) 4(266), 안순봉(#51 박상우 모) 10(1,250), 김현미(#52 오치원 모) 2(79), 이영미(#52 황성규 모) 6(388), 임성영(#52 임강민 부) 2(12), 정정화(#52 조강현 모) 2(372), 박일심(#53 정필승 모) 1(173), 조정숙(#53 유영빈 모) 2(180), 서완수(#55 서지찬 부) 4(142), 정원섭(#55 정준영 부) 2(148), 송학빈(#56 송용준 부) 2(94), 정희숙(#56 배우희 모) 20(1,470), 조재훈(#56 조성진 부) 60(650), 김근택(#57 김광진 부) 4(86), 김수말(#57 김준모 모) 4(82), 박경석(#57 박찬환 부) 4(94), 양내석(#57 양철민 부) 20(430), 오유미(#57 김주현 모) 4(90), 이동희(#57 박찬환 모) 6(125), 김한영(#58 김범수 부) 10(125), 최결순(#58 최승환 부) 2(47), 한만근(#58 한현우 부) 2(76), 현석호(#58 현민석 부) 6(15), 김애령(#59 심승민 모) 6(72), 임승남(#59 전형준 모) 4(48), 장연복(#59 김건희 모) 2(25), 정신(#59 김종현 모) 2(24), 정영남(#59 정두환 부) 4(48), 조철만(#59 조현웅 부) 6(38), 지은주(#59 배석훈 모) 50(150), 현석호(#59 현정민 부) 6(15)

### ■ 재학생 부모('24. 1. 1 ~ 2. 29. 기부현황)

#### ▶ 4학년부모

김산태 2(22), 손학민 4(24), 임성영 2(12), 장은심 2(12), 정미경 10(68), 정지한 10(50), 홍영욱 1(13), 홍혜숙 2(13)

#### ▶ 3학년부모

강현진 100(100), 권혜원 100(100), 김혁 2(2), 남양현 100(100), 안비희 100(100), 유정희 100(100), 이상혁 100(100), 이지연 100(100), 이화영 100(100), 장윤익 100(100), 정경윤 100(100), 최경수 10(10), 홍종찬 100(100), 황광미 3(3)

### ■ 졸업생('24. 1. 1 ~ 2. 29. 기부현황)

- ▶ 1기 김용하 9(25), 남훈조 10(1,519), 민석식 12(149), 이기권 1(56), 임관택 2(110), 최익환 2(112)
- ▶ 2기 윤경혁 10(620)
- ▶ 4기 임성기 10(140)
- ▶ 5기 김영찬 6(127), 김일순 20(475)
- ▶ 9기 권영호 10(570), 김현기 9(1,272), 김희숙 20(220), 윤지환 6(231), 최병학 10(1,385)
- ▶ 13기 문성목 20(540)
- ▶ 14기 김길영 2(128), 김종환 2(86), 안호 20(2280), 이순진 10(1,020), 이용진 10(500), 이종학 4(159)
- ▶ 15기 김성연 2(556)
- ▶ 16기 이영호 2(157), 이종우 2(190), 황병태 2(338)
- ▶ 18기 구연덕 2(160), 금용백 6(660), 이기환 2(55), 진기상 4(1136)
- ▶ 19기 김익수 4(243), 이종형 6(344), 이창호 6(666), 홍성식 2(225), 황영태 6(200)
- ▶ 20기 박권순 4(208), 서정열 2(523), 서진호 50(400)
- ▶ 21기 신철수 4(1,326), 이정문 4(270)
- ▶ 22기 이진성 4(273), 정경호 2(75), 조태환 4(199), 천병규 4(508)
- ▶ 23기 김태일 2(260), 신영찬 2(101), 오승욱 4(324), 정철재 4(241), 최승환 2(37), 허강수 4(339)
- ▶ 24기 광종만 4(112), 권오봉 2(244), 김도협 2(262), 김성래 4(92), 모경원 2(257), 박세철 2(100), 방성대 6(229), 이문희 2(122), 정정현 2(221), 홍성희 4(104)
- ▶ 25기 김협동 2(5), 문봉성 4(245), 장무수 2(79), 전희준 2(335), 홍은표 2(229)
- ▶ 26기 고창준 30(446), 신태영 3(123), 양성안 2(26), 유근환 2(66), 이덕우 2(157), 이용환 1(525), 이원주 6(208), 이태인 4(122), 임우영 2(274), 장용빈 1(152)
- ▶ 27기 김관수 6(169), 김덕중 2(98), 김성우 4(90), 김지덕 2(52), 김호복 8(377), 나현민 4(220), 석수열 2(75), 원희문 1(330), 이희순 3(270), 정필균 2(74)

- ▶ 28기 권승영 1(40), 권양철 3(139), 박용섭 4(233), 유정일 2(65), 윤석찬 2(171)
- ▶ 29기 김강식 2(279), 김태영 4(90), 박성훈 2(183), 박태용 2(162), 이상일 2(218), 정해군 2(4), 현대식 2(180), 황재식 2(12)
- ▶ 30기 김광석 4(62), 김홍빈 6(33), 김효성 2(74), 남진오 2(85), 이병길 2(49), 이진 2(179), 임상달 2(149), 주경호 3(144), 홍성범 2(67), 함민호 2(130)
- ▶ 31기 권동호 4(120), 김영태 2(211), 김태희 2(39), 김희열 2(253), 염항수 2(166), 이재준 2(240), 이훈복 2(78), 최대집 2(76), 전경인 2(63)
- ▶ 32기 권관덕 6(374), 김화용 2(143), 사인우 2(166), 송진수 3(116), 이태현 2(54), 주정용 1(13)
- ▶ 33기 권해욱 4(79), 김남식 2(193), 김성근 4(204), 김현규 4(452), 남석진 2(167), 신성근 1(12), 안경일 2(264), 안준영 6(209), 조용화 2(47), 조재봉 2(140), 홍규원 10(10), 홍종원 2(59)
- ▶ 34기 김기수 2(208), 김민오 4(44), 김윤성 2(75), 김홍식 6(525), 류영택 10(113), 우진호 11(11), 이무이 2(434), 이재원 2(3), 임창훈 2(110), 정연민 10(10), 정웅민 4(240), 정창근 2(136), 정춘환 2(86), 조수창 2(211), 홍영기 2(55)
- ▶ 35기 김경철 2(39), 김수열 2(99), 박병준 6(398), 박상우 2(97), 박상천 2(58), 박시근 2(213), 송명성 4(120), 유희승 4(14), 이문희 2(179), 은명훈 4(24), 임창규 2(137), 장춘삼 2(174), 전성광 2(68), 정병삼 2(181), 정영석 4(137), 정호준 4(154), 하중수 2(55), 한중훈 4(427)
- ▶ 36기 김도희 4(114), 김동혁 2(119), 김명규 1(66), 김현 2(158), 박광석 2(8), 양현승 2(244), 이광희 2(180), 임종수 2(100), 장세호 2(231), 정우철 2(166), 조동근 2(247), 진연수 2(191)
- ▶ 37기 강성봉 2(197), 김양훈 6(327), 김충기 4(207), 김홍년 2(282), 노진철 2(176), 문장권 2(50), 송석봉 4(211), 송용섭 2(345), 염태환 2(20), 옥원호 2(162), 이관모 2(168), 이원형 4(335), 임원철 2(183), 정우진 2(100), 정태욱 6(174), 최정호 2(68), 함성규 2(133)
- ▶ 38기 강민 2(41), 김대현 2(44), 모을하 2(261), 문정민 2(146), 문현성 2(259), 서성걸 2(108), 이경식 2(207), 위재익 4(133), 정한욱 2(238), 함기훈 2(114)

- ▶ 39기 권웅 4(76), 김의진 2(155), 김인경 2(113), 김지훈 4(145), 박철근 2(149), 송창현 4(171), 심용운 2(118), 양운차 2(96), 이대화 2(240), 이웅렬 2(137), 정대겸 2(56), 최현철 2(302)
- ▶ 40기 구자운 4(230), 김백린 6(232), 김영우 6(334), 김우형 4(66), 김종욱 2(69), 김형수 2(205), 남태근 2(64), 박상우 2(82), 박진하 2(121), 송석준 2(166), 유희선 2(112), 이호연 10(838), 이훈석 2(88), 최창국 2(124), 하성남 5(57)
- ▶ 41기 권영철 2(95), 김석진 10(388), 박한지 2(215), 방현욱 2(105), 손종득 2(123), 임성은 4(177), 전종상 10(347), 정기재 2(215), 최민규 4(169), 최지능 2(238), 홍학현 6(70)
- ▶ 42기 강구한 2(46), 강재석 2(133), 강정희 2(182), 공광석 2(88), 김동우 2(156), 김동진 2(125), 김용민 2(92), 박용준 6(118), 박효찬 2(182), 손병현 2(200), 윤광일 2(38), 윤희철 2(176), 이기욱 2(123), 이승운 2(182), 이웅학 2(185), 정만기 2(173)
- ▶ 43기 강민식 4(298), 김인중 2(266), 노창태 2(73), 박희영 2(89), 배동직 6(226), 백두산 4(294), 염태섭 2(74), 이남익 3(92), 이도훈 2(157), 이용희 4(281), 이효선 2(112), 최진호 4(143), 허광석 2(121)
- ▶ 44기 김대은 2(133), 김승돈 4(54), 권용혁 4(88), 서동준 2(168), 엄태천 2(121), 오승우 6(127), 이민재 2(160), 이영민 2(169), 이희성 4(197), 최재근 2(100), 황재혁 2(59)
- ▶ 45기 권기호 2(163), 김동호 2(171), 김성수 4(165), 박영일 2(166), 박지훈 2(114), 서석관 2(194), 신유철 2(156), 이인권 2(111), 이진희 4(188), 정재현 2(167), 정진우 2(168), 채희용 2(146), 최충수 2(169), 황승세 2(156)
- ▶ 46기 강승웅 4(314), 권지민 2(42), 김대영 2(69), 김명철 2(155), 김정렬 2(155), 김정호 2(272), 김정훈 2(21), 김진용 2(189), 박수만 2(61), 백인정 2(159), 송원상 4(258), 오기리 2(153), 이상운 2(155), 이신화 6(417), 이수원 2(158), 이진철 2(146), 정종택 6(467), 조광연 2(93), 조수빈 2(117), 차승우 2(117), 표상열 2(155), 한영인 2(155), 홍한표 2(145), 황순창 2(151)

▶ **지면제한으로 47기 이후 기부현황을 기재 못한점 양해바라며**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59기, 학교발전에 6억 5천만원 기여!



도 38기 졸업 때부터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2월 29일 졸업 및 임관식을 거행한 59기 졸업생도들이 모교발전과 후배생도들의 교육진진을 위해 총 6억 5천만원을 기어하는 약정서를 59기 동기회장(이현진 소위)이 재단이사장(19기 이창호)에게 전달하였다. 59기 동기회는 3천만원을 임관식을 기념해 기부했고 이와 별도로 개별약정자 384명이 향후 10~20년간 약 6억 2천만원을 기부하게 된다. 졸업생도들의 이러한 참여는 2003년

## 국민은행, 학교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2024년 2월 23일 KB국민은행 대구경북지역그룹 이재식 대표등 4명의 KB국민은행 대구경북지역그룹 및 지역본부 임원 일행은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발전기금 1,000만원을 재단 편철권 선임이사에게 전달하였다. 국민은행은 매년 3사관학교 발전에 10년 이상 변함없는 참여를 해온 기업으로 현재까지 총 1억 2700만원 기부하면서 학교와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 발전기금 참여 안내

####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 정보수정 희망시에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054) 330-3180, 3182

